

사이버 서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영풍·종로 등 잇따라 인터넷서점 개설 ... 전근대적 유통구조가 장애물

매장없는 인터넷 서점 '아마존(<http://www.amazon.com>)'의 성공 이후, 사이버 서점 업계에 대형서점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다. '지상 최대의 서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로 불리는 아마존에 위협을 느낀 서점 업계가 응전하기 시작한 것. 미국 전역에 1천여개의 지점망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서점 체인 반스&노블의 공세는 만만치 않다. 대규모의 창고와 유통망을 갖고 있는 이들 대형서점체인들은 책값 할인율, 배달 속도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아 후발업체지만 바짝 따라붙을 전망이다.

지방독자들의 비중 높아

국내의 대형서점들도 인터넷서점에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지난 5월 종로서적에 이어 6월에는 영풍문고가 인터넷 서점을 열고 온라인 주문판매를 시작했다. 북클럽과 PC 통신 판매가 활성화되어 있어 인터넷 진출이 상대적으로 늦은 교보문고도 오는 9월까지 인터넷서점을 개설할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종로서적의 가상서점 '인터넷 북스토어 종로서적(<http://book.shopping.co.kr>)'은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종로서적이 제공하는 도서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즉시에서 주문, 결제할 수 있다. 단 회원으로 등록해야 주문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화면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고 회원이 되면 국내에서 발행되는 신간서적 관련소식을 전자우편을 통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종로서적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책 이름과 출판사 저자 등을 아는 대로 써서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면 전문사서가 찾아내 전자우편으로 통보해 주기도 한다. 개설 직후 종로 인터넷서점이 제공한 도서정보는 약 8만5천권. 그러나 개점 한 달만에 1백80여만 권의 보유 도서를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했다. 분류별 주제별 찾기가 가능하고 제목·저자·출판사별로도 책을 찾아볼 수 있다. VPS(Virtual Platform Service)라는 신기술을 적용, 기존검색방법에 비해 30배 이상 검색이 빠르다. 1주일에 2천종 이상씩 들어오는 새 책들도 즉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있다.

홍보과의 정광희 계장에 따르면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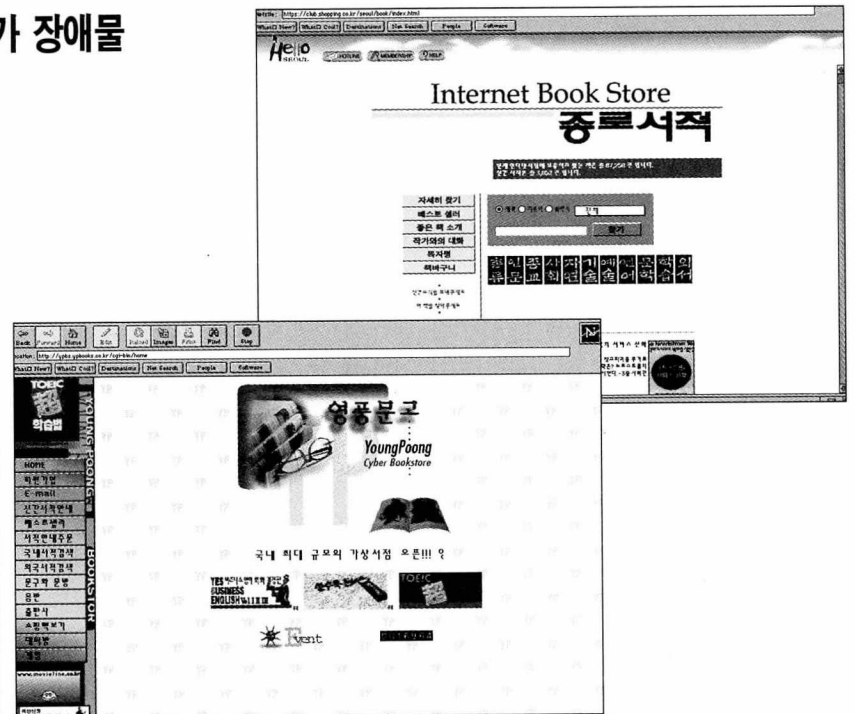
국내 대형서점들이 잇따라 인터넷서점을 개설하고 있다. 지난 5월 종로서적에 이어 6월에는 영풍문고가 인터넷서점을 열고 온라인 주문판매를 시작했다. 9월에는 교보문고도 개설할 계획이다. 우리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인터넷을 통한 도서판매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술한 난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다.

서점의 이용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다. 현재까지 1일 평균 20여건 이용하고 있는데, 도서 주문과 문의가 각각 절반 정도. 인터넷서점 전산 담당자인 고유정씨는 "서점에 직접 올 수 없는 지방독자들의 비중이 높다"고 전한다. 인터넷 서점은 외국서적과 다양한 책정보를 얻기 힘든 지방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종로서적보다 한달 늦게 사이버 서점을 연 영풍문고(<http://ypbs.yppbooks.co.kr>)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약 30만종의 국내 서적과 영미 서적 170만종이 데이터 베이스화되어 있다. 영풍의 시스템은 QRS(Quick Response System)로 자체서버와 보안을 갖춘 시스템이다. 종로서적과 비슷한 규모의 서적을 보유하고 있고 검색방법 또한 차이가 없는 영풍문고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 영풍은 종로와는 달리 유료 회원제이지만 선착순 1만 명에 한해 회원 가입비 1만원을 받지 않을 계획. 회원들에게는 외국서적과 영풍문고에서 출판한 서적, 문구 음반을 10%할인해 주고 외국의 석 박사 논문 초록을 수시로 발송해 주고 있다.

전문통신업체도 인터넷서점 진출

그동안 통신망을 빌려주고 수익을 취하던 컴퓨터 통신업체들도 직접 사이버 마켓으로 뛰어드는 추세다. 북파크(bookpark)는 지난 4월에 개설된 데이콤의 인터넷 쇼핑몰 '데이콤 인터파크'(<http://www.interpark.com>)내에 있는 인터넷 서점. 이곳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도서명, 저자, 장르



영풍문고와 종로서적의 인터넷 서점 초기화면.

별로 분류해 화상정보와 함께 상세한 도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금결제, 배달에 이르는 책구입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상에서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북파크의 장점은 다양한 인터넷 기술보유 및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기술력 덕에 강력한 서치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의 이전 저작도 화면에서 클릭하는 것만으로 다 찾아볼 수 있다.

또하나의 기능은 '찾아주세요?'라는 메뉴. 자신이 원하는 책이 목록에 없거나 서지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 이 메뉴를 이용하면 며칠내로 원하는 책을 찾아주는 인터랙티브 시스템이다. 대금결제는 신용카드나 온라인 송금 방식이며 배달료 없이 주문일로부터 3~4일 이내에 책을 배달해 준다.

북파크에 올라 있는 책은 3천여권 정도된다. 홈쇼핑 전체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인터파크와 북파크에 접속하는 2천여명 중 실제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조회수는 많은 편이고 지방독자 외에 외국에서 우리 책에 대한 정보를 문의해온 해외독자도 많다.

영업기획실 노철 실장은 "우리는 물량에 연연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홈쇼핑시장이 활성화될 것은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북파크는 다른 서점과 차별화하여 영어와 컴퓨터 관련서적에 매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점은 인터랙티브 기능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 미리 샘플을 온라인에 띄워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출판하는 베타테스트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번 달에 5천여권의 전문도서와 일반도서 1천권이 온라인

에 오를 예정이어서 점차 탄실해질 전망이다. 북파크는 서울문고와 BNK와 공조하고 있다.

올초부터 서비스하기 시작한 인터넷 통신 회사 (주)아이테크의 '북숍 (<http://www.bookshop.co.kr>)'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서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원하는 서적을 검색할 수 있고 5-2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 직수입한 외국서적은 해외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인터넷 서점의 전망

미국과 일본에서는 인터넷서점을 통한 도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20%를 차지할 만큼 인터넷 서점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통신 판매의 역사가 오래 된 만큼 자리가 잡혔고 상호간 신뢰가 쌓여 있다. 소비자들은 물건이 마음에 안들면 자유롭게 반품하여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우편배달 사고에 대한 불안도 적은 편이다. 그러나 우리 상황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국내 온라인 서점, 인터넷서점이 안고 있는 난제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복잡하고 전근대적인 국내 유통상황이 온라인 시장의 부가가치 창출에 큰 장애물이다. 우편료나 배송 등 운송체계의 정비도 관건이고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따르는 수수료도 만만치 않다. 관계자들은 이런 제반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온라인 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 마정미 기자